

“봉사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대통령상’ 이정남씨

행안부 주최...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2년 연속 배출 영예 박미숙·김용덕씨 ‘국무총리상’...최소순씨 ‘행안부장관상’

“이번 수상은 소속 봉사자 모두가 함께 이뤄 낸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회복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2년 연속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최고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연이은 쾌거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결집된 결과로, 센터는 수상을 발판 삼아 나눔 문화를 지역을 넘어 전국에 알리고 확산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인다.

2일 광주 동구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1985년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의 날(12월5일)’을 기념해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시상하는 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해 오고 있다.

올해 대통령상의 주인공인 이정남(75·여)씨는 2005년 10월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해 1만4천900시간에 달하는 봉사시간을 기록한 자타공인의 ‘봉사왕’이다.

이씨는 주로 ▲의료서비스 현장 지원 ▲재난·안전 예방 활동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발전과 통합에 기여해왔다.

자원봉사단체 한마음회 동구지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



이정남 박미숙 김용덕 최소순

며 “이 상은 혼자가 아닌, 함께한 자원봉사자들과 동구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받은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씨 외에도 올해 동구자원봉사센터는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박미숙(61·여)씨는 동구새마을회 부녀회장과 총장동 자원봉사 캠프장으로 ▲새마을 운동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 돌봄 ▲재난현장 교육 및 긴급 대응 구호 활동 등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 왔다.

또 다른 국무총리상 수상자인 김용덕(65·여)씨는 (사)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에서 활동하며 ▲천원 밥상 운영 ▲취약계층 및 이주민 도시락 나눔 활동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최소순(78·여)씨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복지봉사’에 헌신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활동과 백신 접종 지원에 앞장섰다.

수상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시상식은 오는 11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2024 광주 자원봉사대회’ 중 진행된다.

김순권 동구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봉사자와 동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이뤄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영기자



광주교대, 전국 IGT대회 모의수업 시연 ‘대상’

광주교육대학교는 “최근 대구 EXCO에서 열린 ‘전국 IGT(I am a Global Teacher) 대회’에서 글로벌·다문화 모의수업 시연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 IGT 대회는 예비교사들의 글로벌·다문화 인식 확산 및 실천 역량 집중적 향상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전국 4개 GTU 사업단이 주관하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교·사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글로벌·다문화 모의수업 시연 부문 예선을 치뤘던 권역별로 최종 8팀을 선발했다.

본선 심사 결과 광주교대 COVE팀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방법 찾기’를 주제로 한

모의수업 시연 발표가 대상(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COVE팀은 “광주 지역에 크게 형성된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 깊은 고민을 거듭했다”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은 “이번 수상은 미래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준비해온 학생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다문화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송원대-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인재 양성’ 맞손

송원대학교는 “최근 대학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와 미래철도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철도 전문가 상호 공동 활용 ▲철도건설 현장 견학·교육 ▲학술자료·출판문 등 각종 정보 교류 ▲취업설명

회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수태 송원대학교 총장은 “국가철도공단의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전문가 공동 활용으로 미래철도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이지자



전남농기원, 지역 우수 농산물 판매기획전 성황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일주일간 전국 GS슈퍼 500여개 매장에서 전남 우수 농산물 판매 기획전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에서 개발한 신상품 농산물과 지역 우수 농산물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마련했다.

GS리테일과의 협업으로 2021년부터 매년 추진된 기획전은 전남 농산물의 수도권·전국 유통망 확대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번 판매기획전에는 전남농업기술원

이 개발한 새청무 쌀, 용아 목이버섯, 해금 키워, 팽이버섯, 고구마 등 다양한 신상품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선보여 총 3억9천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행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판매기획전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전남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각 시·군 특화 상품과 맞춤형 농식품 유통처 발굴 노력을 기울여 전남 농산물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하나님의 교회, 서구 일원서 ‘Green Earth’ 활동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 교회) 직장인정년봉사단 ASEZ WAO는 지난 1일 광주 서구 일원에서 ‘Green Earth’ 활동을 펼쳤다.

ASEZ WAO 회원과 봉사자 등 70여명은 치평

동 일대 15km 구간을 돌면서 일회용품, 캔, 담배꽂초 등 50ℓ 봉투 40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대운호 ASEZ WAO 회원은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빛고을안전체험관, 다문화가족 안전체험 한마당

광주시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2일 “지난달 30일 체험관에서 안전을 배우고 즐거움을 나누는 다문화가족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문화가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안전 등 8개 체험 교육과 소방안전 상식 퀴즈대회, 가족과 함께 추억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또 포토존을 활용한 가족 추억사진 촬영, 소정의 기념품·선물 증정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됐다.

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다양한



안전문화 체험 행사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소통 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채규선 순천 원예농협 조합장 ‘소방청장상’



순천 원예농협은 “채규선(사진) 조합장이 최근 열린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의 날은 국민 안전의 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11월9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순천소방서는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60명, 의용소방대 10명, 주민 10명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표창은 행정안전부장관상 1명, 소방청장상 5명, 전남지사상 7명이 수상했으며 이 중 채규선 순천원예농협 조합장이 소방청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채규선 조합장은 “순천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응급처치 교육과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며 고객 안전 보장을 위해 힘써왔다”며 “각종 재해가 늘어나는 요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모든 소방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



여수상의, 이유진 여천NCC 대표 초청 강연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노감 여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오찬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열린 오찬 강연회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및 수요시장 경쟁 등 대내외 요인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강연회에는 기업체, 지자체·유관기관 및 노동계 등 120여명의 대표가 참석했고, 이유진 여천NCC대표이사도 강연했다.

이 대표이사는 ‘위기의 석유화학 산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중국·중동을 포함한 세계 석유화학시장의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향후 생존 전략을 제시·공유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및 글로벌 수요 부진 등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기업이 생존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나주경찰, 하반기 집회시위자문족정 기획회의

나주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는 장진영 경찰서장, 김성중 위원장, 경찰서 정보과장,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주요 집회 시위 현황보고, 민원성 집회시위 관리 대책,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등이 이뤄졌다.

장진영 서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 기조 아래 공공안녕 위협요인 최소화 및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시위자문위원들과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나주=정준환기자

결혼

▲진명성·김옥임씨 장남 현호(부안해양경찰서 수사과관), 박천재·정경지씨 장녀 운형(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 7일(토) 오후 1시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메리모엠펜딩룸 지하1층 메이에르룸.